

LEE JI WOONG

ari_01@naver.com

+82) 10 3888 5399

CV

주요 개인전

2022 트라이보울 ‘I AM REAL HIPHOP’ (인천)

2022 순천 기억공장 1945 ‘힙합의 장’ (순천)

2020 서리풀 갤러리 하반기 선정작가 ‘광기_우리가 만든 연극’ (서울)

2019 제물포 갤러리 힙합/내 주머니 속 모든 것들을 조각하다 개인전 (인천)

2019 아트스페이스 인 이지웅 개인전 (인천)

주요 단체전

2022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서울)

2022 아트그라운드 흥대 (서울)

2020 오산시립미술관 야외컨테이너 ‘쇼콘’ 단체전 (오산)

2020 서구문화재단 문화재생 프로젝트 ‘문화더하기 (인천)

2019 ‘침삭가능한’ 수창청춘맨션 선정작가 (대구)

2019 인천서구문화재단 아트큐브 선정 작가 (인천)

2019 FREAK SEOUL 프러타주 갤러리 단체전 (서울)

2019 we are young 인천공항 제 2 터미널 단체전 (인천)

기타

2023 인천문화재단 집중창작지원금 (다년) 선정

2022 송정미술문화재단 창작지원금

2022 인천미술은행 소장

2022, 2020, 2019 인천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기금선정 (인천)

2019 일본 아트올림피아 동아시아 문화도시 우수 작가 전시 (일본, 도쿄), Emmanuelle Lequeux 심사위원특별상 수상 및 작품소장

2019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14기 선정작가

2019 네이버 그라폴리오 하반기 선정작가

2019 NOIR OUT 채널1969 디제잉 협업 프로젝트

마이크를 잡고 녹음에 열중한다. 몇 시간째 녹음하며 티셔츠는 땀범벅이다. 땀 냄새 가득한 방 속엔 나 홀로 음악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녹음을 하기 전 펜으로 그림 그리듯 가사를 막힘없이 써 내려갔다. 그러나 거침없이 썼던 가사처럼 녹음은 쉽게 되질 않았다. 허만 꼬이고 헛소리만 해댔다. 역시 마이크 울렁증은 이런대서 나를 괴롭힌다. 비록 방에서 나 홀로 하는 작업이었지만 무대에서만큼이나 긴장된다.

어렸을 적 처음 힙합공연을 했을 때, 지금보다 작은 손으로 힘없이 마이크에 진동을 느꼈다. 긴장과 함께 어눌한 발음으로 랩을 했던 기억이 난다. 관객이라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친구들과 운동을 하러 나온 아줌마들이 전부였지만, 무대에 선다는 자체가 나에게 다리다 저릴 만큼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

매일 같이 쓰지 못해서일까 한번 쓰면 그 속에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음악에 흥을 맞추며 이것저것 주제를 잡아 글을 쓰고 표현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래퍼라는 꿈은 포기했지만, 열정은 포기하지 않은 나였기에, 마이크를 잡을 때만큼은 붓을 잡을 때만큼 짜릿했다.

‘BE EASY’ 라는 주제의 가사를 녹음한다. 자신을 복제하듯 생각을 다듬고 음악 속에 담는다. 정성스럽게 쓴 가사에는 나의 감정에 대한 자취가 묻어 있다. 주제에 걸맞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며, 나는 힙합이라는 것을 쉽게 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항상 자신감이 없던 나에게겐 갑갑함을 풀고자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쉽게라는 단어는 나에게 많은 의미의 가사를 쓰게 만들었다. 누구나 행동으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을 하기까지에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만의 꿈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꿈을 이루려고 한다. 노력이라는 과정을 무시해버린 채 빛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니 말이다. 음악이라는 한 장르뿐만이 아닌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꿈에 대한 용기와 곁에만 초점을 맞춰버린 뻔뻔한 자신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운 여름날, 캔버스 위에 물감을 닦아내고 덧칠하며 내가 원했던 목적지로 향했다. 랩과 마찬가지로 매번 그림을 예민하게 바라보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다. 무엇인가에 몰두해 결과물을 만들고 과정을 거치는 노력에서 나는 그림의 또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을 쪼개며 하는 것이기에 그 순간에 즐거움이란 나에게 항상 신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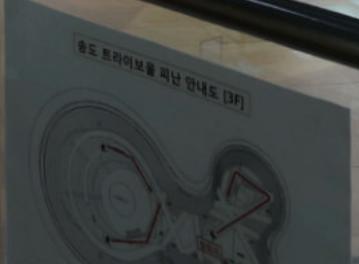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나에게 필요했지만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을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깝고 먼 것을 의미했다. 쉽게 말하자면, 책상 속 어딘가에 오래된 추억거리가 있듯이 예술 또한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먼지를 털면 찾을 수 있는 옛 사진과 같았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예술이라는 자체는 보고 또 봐도 새로운 것을 알고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힙합을 알아서 랩을 접한 게 아니듯이, 예술을 알아서 그림을 그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저 관심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된 까닭이었다. 오히려 알고 부딪혔다면 순수한 감정과 예술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장르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고뇌라는 것이 존재했고 자신의 주관적인 거울을 통해 만들어간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예술이란 것은 창조를 의미한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는 창조가 아닌 작가, 래퍼 그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예술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써 내려갔다면 타인에게 진심이라는 술잔을 권하는 것과 같다.

작가노트 (관계)중에서



〈페스티벌 시리즈〉, 2022, 철판에 페인트, 공간에 설치, 공간크기 500x700cm





부조화와 조화, 조화와 부조화

2017년 광화문에서 한 연주회 있었다.

청년 오케스트라.

거리에서 하는 공연은 나에게 있어 처음이었고 주변 환경의 백색소음은 오히려 음악회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브라운 톤의 웅장한 공간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 믿던 나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가까워서 그들의 섬세한 움직임도 느낄 수 있었다.

2022년 5월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크랩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예술의 기사들, 시위 현장들, 당시에 이슈들까지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다. 그것 중에 눈에 들어오는 빼곡히 앉아 악기를 연주하는 그들. 5년이 지난 후에야 그 소리가 그리워졌다.

나는 항상 시끄러운 소음을 모으고 있었고 그래야 강하게 사회적인 의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믿었다. 그들의 클래식 음악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도 어떠한 소음을 일으키지 않지만 오히려 자극이 없는 그들이 음악은 더 맛있어 보였다.

〈타투_내 얼굴에 표현〉, 2022, 캔버스에 유화, 162.2x130.3cm_좌

〈조화〉, 2022, 캔버스에 유화, 162.2x130.3cm_중앙

〈파도소리〉, 2022, 캔버스에 유화, 162.2x130.3cm_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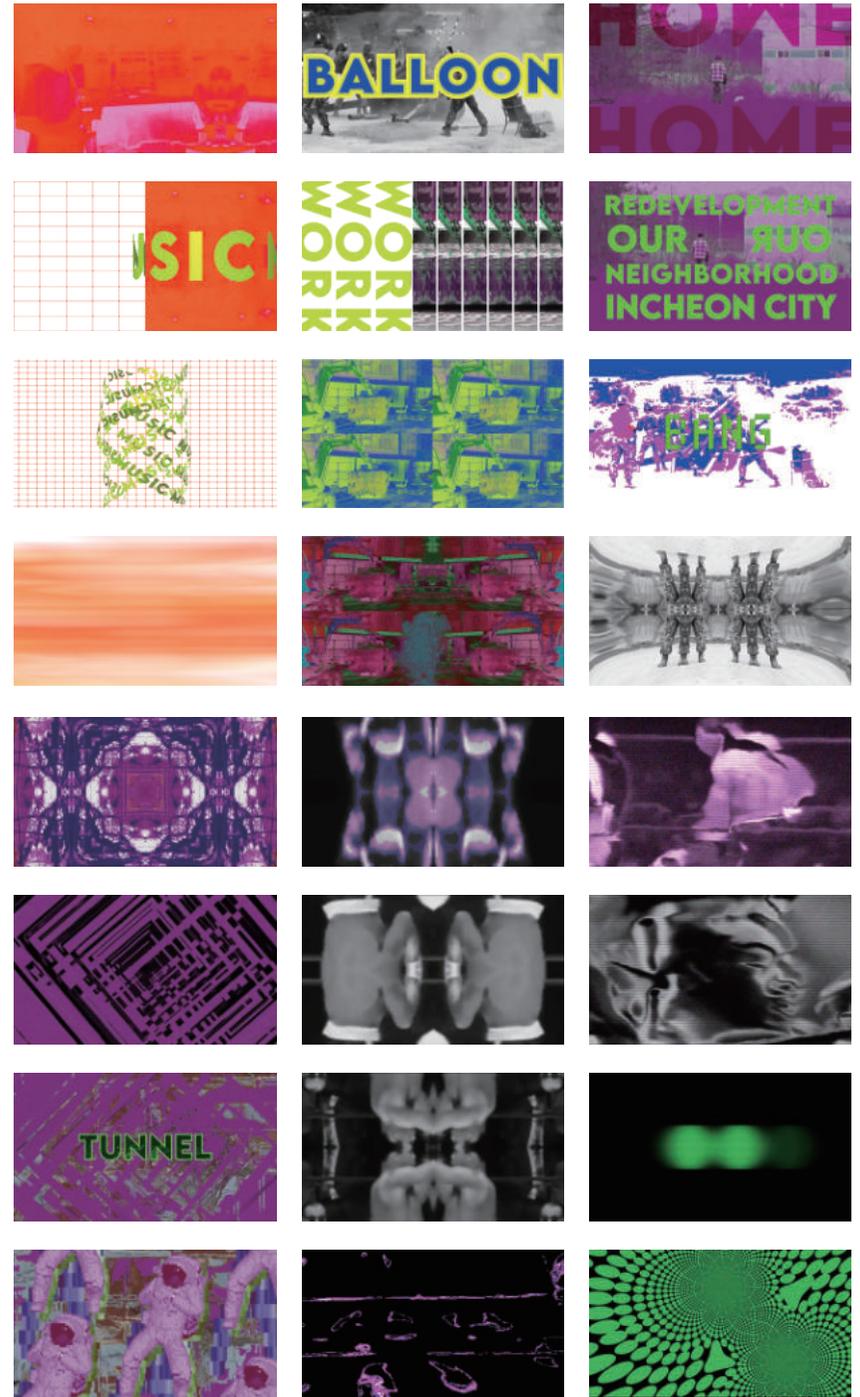




〈그때 거기〉, 2021, 캔버스에 유화, 40.9x31.8cm_좌
〈스포트라이트〉, 2022, 캔버스에 유화, 53.0x45.5cm_우

LAYER UPON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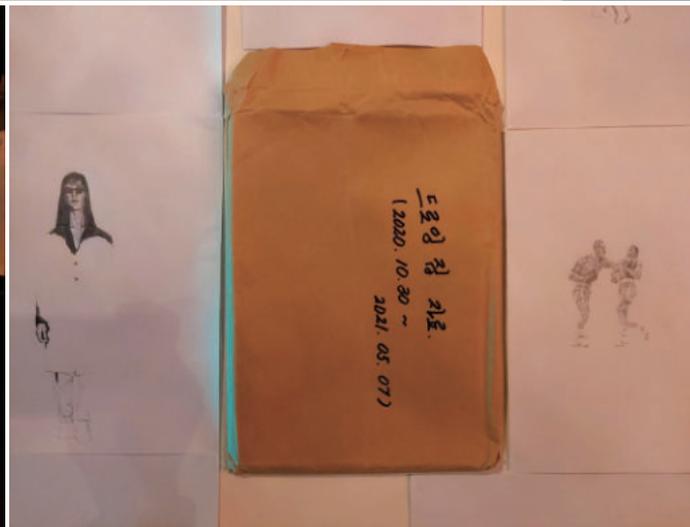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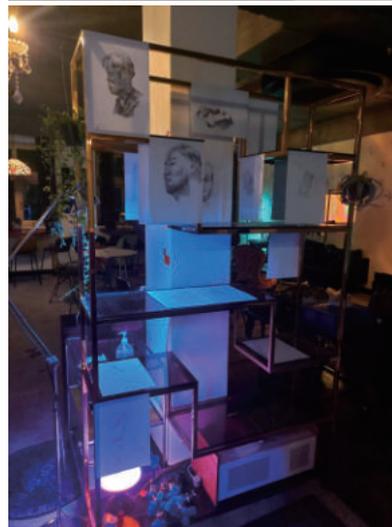
콜라주 방식의 영상 작품을 진행하고자 했다. 'LAYER UPON LAYER' 는 레이어를 하나하나 레이어를 쌓는 방식으로 영상에 입히며 기억이라는 주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어긋나게 표현했다. 부조화의 제목처럼 미로 속 서로 다른 이미지들은 심미적으로 충돌하였고 나의 과거 속 영상들은 시퀀스 안에서 우연한 결과값을 내고 있다.





하루에 한장씩의 목표를 가지고 당시에 나의 불안함을 이겨내려 했다. 그림 일기처럼 그렸던 드로잉 습작들이다.

<DRAWING ZIP>, 2022. 종이에 드로잉, 공간크기 300x600cm





〈페스티벌 시리즈〉, 2022, 철판에 페인트, 공간에 설치, 공간크기 300x700cm





〈후에〉, 2020, 캔버스에 유화, 162.2x130.2cm

AFTER

외형, 껍데기에만 충실해져 버린 우리들. 그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던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이슈, 세상의 흐름이 점차 잊혀질 때 나의 스크랩 북은 쌓여만 갔고 점점 하얀 먼지가 들러붙었다. 하나의 조각 기사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작은 과거의 사진들은 담았다. 매일 같이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기억을 툭 털며 생각의 꼬리를 끌어내고 있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독〉, 2021, 캔버스에 유화, 65.1x50.0cm

《Track_1》	《CTY》	《FESTIVAL》	《집집이 안되는 오늘》	《빌딩과 빌딩사이》
흑인의 힙합으로 시작해	어지럽게	봐라 저기 봐	복잡해진 머리	지긋지긋 설거지는 언제나 깨끗이
나만의 힙합을 되려고 하네	꼬인내가	조명이 켜지는 것 좀 봐	출렁이는 도시	우리가 보는 삶은 언제나 똑같지
나와 경계가 애매한데	봐라저기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알아	빛바래진 사진	정점에 선 햇빛은 언제나 밝지
어지럽게 꽃이 피네	케빈은		축축해져 땀새나는 티가	
	홀로앉아	네모난 붓을 꺼내 휘갈기고	내 마음을 대변해	목이 아파 하늘을 보지 못할 땐
어렸을 적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끝이 없이 고민을 하려고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해	역지로 일시켜 지지개를 퍼지
우연히 듣게 된 투박	탈출구야 여기가		찢어진 풍선은 언제나 불안해	내 몸이 무거워졌고
Life goes on	뭐니 뭐니 해도 좋지 돈이	일삼공 일육삼의 흰색		불어난 체중을 나를 둔하게 만들어
어려웠던 유년 시절의 불안감	고이 접자 허리	몇번을 덧칠했지 오늘	쓰고 또 쓰고 원하지 않는 모양에	차거운 체인이 나를 감싸고
가사에 공감	날 옥죄다 혁띠		자신감을 잃고	
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동경	숨막히게	뭔가 불안했나봐 나에게도 내삶이	무한한 상상력이 가져다 준 미래	오도가도 못한 불안감을 날을 덮쳐
	달려온 내가	꿈이 있어도 뒤쳐지는 게 싫지	그래 잘했어 웅아하며	세어 나갈 곳 없는 곳에 내 마음만 좀 먹어
나에게 물어봐 “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 왜 하필 힙합인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불빛		언제나 내 자신에게 주는 용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해주는 이 없어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흑과 백	내 친구 (막)걸리가	여기가 어디냐고 소리쳐도 듣는 이 없어
속으로 말했어 그들이 좋다고	시끄러운 바다	내가 보는 세상엔	오늘도 3차로 날 이끄네	탕탕 결정해 난 이미 믿음과 믿음 사이 다리를 놓았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언제부터였냐 레드오션	돌로 쪼개져 분명해진 선	팬이처럼 날 채찍질해	정반대의 삶은 나를 미치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색을 가졌는지 나조차도 궁금해	흰색과 회색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힘든건	상처가 흉터가 되도 그게 멋인데	
	파란색 빨간색이 섞여	자꾸만 뒤를 보기 때문에		면 빌딩을 바라보네
매스컴에 힙합	만들졌어 이 도시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빌딩과 빌딩 속에 갇혀
내 머릿속 어지럽게 쌓여버린 종이 상자		홀로 앉아 막걸리를 찾네	구불구불 숨쉬는 대로	생각도 제자리네
온전한 힙합의 감정과	방에 불을 밝혀	속은 불이 나 검은 숲이되네	고민이 많아 어려모로	무섭게 올라간 괴물이
나의 기억을 섞는다	쓰는 일기	밀리지 않는 월세가 이상하게 화를 돋네	스케치를 하네 오늘도	날 아비하게 쳐다보네
	곱다 고우니 사진 속 우리		선을 여러 번을 긋고	소유할 수 없으니
빈 공간에 조각들을 쏟아내	언제부터가 사라진 여유가	주어진 규칙이 너무 많아	언덕 위 나는 나비를 그려 넣고	답답함과 불안함은 여전히
공간을 골라	숨이차 삶이란 바다가	뜯고 싶지만 그럴 만한 당당함이 없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우리엄마
콜라주를 만드네		가슴을 퍽퍽 치며		그래도 부럽잖아 솔직해져 봐봐
		등위로 들리는 쿵쿵 소리에		남에 딱이 더 커지니 유난히 더 잘보이나봐
어떤 색과 수식어 없이		뜨눈으로 하늘 색의 빛을 마주해		가난이란 꼬리가 언제쯤 끊어질까
끊임없이				속이허한채 뺨는 한숨
포장된 힙합을 벗겨내기				속불 꺼 깎포스
레이어로 만들어진 힙합이				
풍미와 맛으로 가득하길				





〈페스티벌 시리즈〉, 2020, 철판에 페인트 공간에 설치, 공간크기 200x1400cm





〈반란사태 -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2020, 철판에 페인트, 175x60cm

재료의 특성을 살려 전시 배경음악으로 제작했다.

첼판을 두들겨 나오는 울림과 소리로 전시 공간을 첼판의 소리로 채웠다. 또한 영상은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다.



〈비창〉, 2020, 28"



〈비창〉, 2020, 42"



〈비창〉, 2020, 1' 4"



컵을 먹은 아이는 저 멀리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에 끝이 궁금했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나와 반대쪽에 있는 이들이 궁금했고 작은 종이를 통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작은 글과 작은 소음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며, 진정 즐기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았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였고 인생에서 커다란 과제이기도 했다. 진정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이 아닌, 몸으로 부딪쳐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었다. 발로 공을 차며,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듯이, 자신을 느끼며 자신의 진정한 열정에 맞을 느껴야 했고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생각해야 했다. 명확히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깨져버린 톱니바퀴의 이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소름이 끼치는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작가노트 중에서

〈홈런왕〉, 2019, 철판에 페인트, 172x45cm



HOME RUN

A BOX OF CONVENTIONAL IDEAS

〈틀에 박힌 생각 - 판도라 상자〉, 2019, 철판에 페인트, 168x90cm

SPACE COLLAGE 공간콜라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잦은 소음과 그 행위들의 이미지를 힙합 문화와 인물들을 섞어 공간에서의 가변적 설치를 해왔다. 신문에서 눈에 띄던 사회적 이슈와 담겨 있는 감정을 힙합의 한 맥락(1990-2000)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주된 요소였다. 잡지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작은 작품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주 작품을 큰 규모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사회 이슈의 기사들과 90년대 힙합의 모습들을 섞어 사람 크기의 철판으로 구현해왔고 선물상자를 연 것처럼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보여 줄 수 있는 공간 콜라주를 만들고자 했다.







〈그 누군가는 착한 사람〉, 2019, 캔버스에 아크릴, 162.2x130.3cm



〈헬프〉, 2019, 캔버스에 아크릴, 65.1x53.0cm



〈보도자료〉, 2019, 캔버스에 유화, 162.2x130.3cm



THE REASON WHY I FELL INTO DARKNESS

〈어둠 속에 빠진 이유〉, 2019, 캔버스에 유화, 162.2x130.3cm

“우리는 소리치고, 미치고 싶었어.”

페스티벌의 연극이 이제 막을 열었다. 작은 소리가 들리고 조명이 켜지며, 바라보는 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무대 속 모습에 자신의 삶을 날카롭게 관통하여 바라본다. 그들의 미쳐 날뛰고 폭발적인 행동 속에 자신들의 욕망을 덮고자 했다. 누구나 삶이란 연극 속에 살아간다. 가면을 쓰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 마주할 곳. 소리와 조명에 비친 한 장면이 머릿속 잔상으로 남아있다. 페스티벌이라는 작은 시위 속 한 장면을 연극처럼 꾸몄다. 시위 속에 작은 움직임에 집중하였고 시위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긴밀한 관계 속에 몰입하였다.



《페스티벌 시리즈》, 2019, 철판에 페인트, 공간에 설치, 공간 크기 200x400cm



〈파티를 위한 독한 술〉, 2018, 철판에 페인트, 180x130cm, (좌)

〈방독면 쓰고 저항하다〉, 2018, 철판에 페인트, 200x160cm (우)



〈춤추는 순경〉, 2019, 철판에 페인트, 200x170cm (좌)



〈물음표〉, 2019, 철판에 페인트, 130x110cm (우)



〈나비효과〉, 2018, 캔버스에 아크릴, 112,1x145,5cm



〈연기 속 그들〉, 2017, 캔버스에 아크릴, 116.8x91.0cm (좌)

〈노트리어스〉, 2017, 캔버스에 아크릴, 116.8x91.0cm (우)



〈힙합 드로잉〉, 2017, 종이에 콜라주, 채색, 116.8x91.0cm (좌)

〈힙합 드로잉〉, 2017, 종이에 콜라주, 채색, 116.8x91.0cm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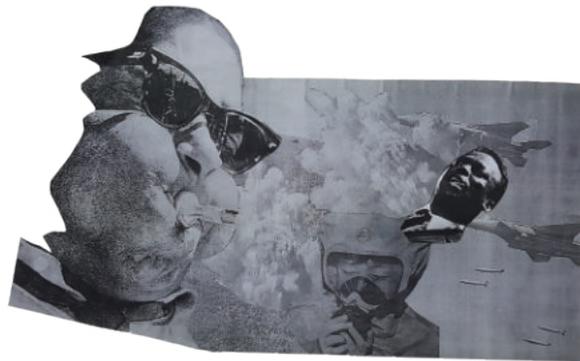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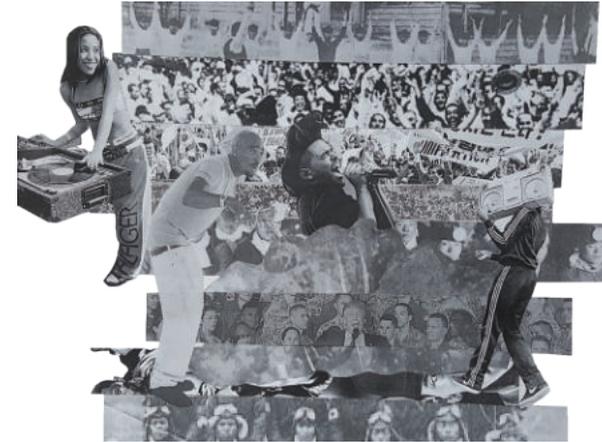
〈페스티벌 드로잉〉, 2017, 종이 콜라주, 채색, 21.0x29.0cm (위)

〈페스티벌 드로잉〉, 2017, 종이 콜라주, 채색, 21.0x29.0cm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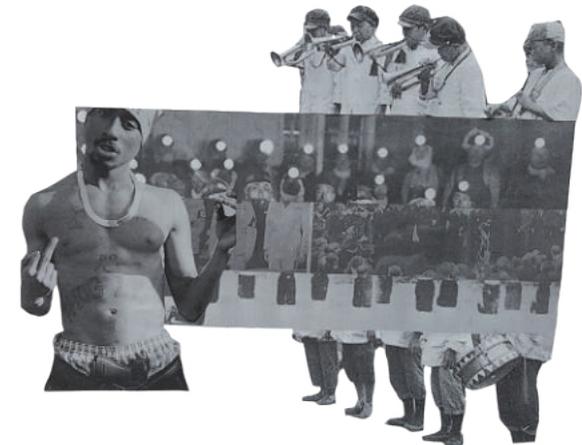
〈페스티벌 드로잉〉, 2017, 종이 콜라주, 42.0x51.0cm (좌)

〈페스티벌 드로잉〉, 2017, 종이 콜라주, 29.0x21.0cm (우)



〈페스티벌 드로잉〉, 2017, 종이 콜라주, 42.0x59.4cm (좌)

〈페스티벌 드로잉〉, 2017, 종이 콜라주, 42.0x59.4cm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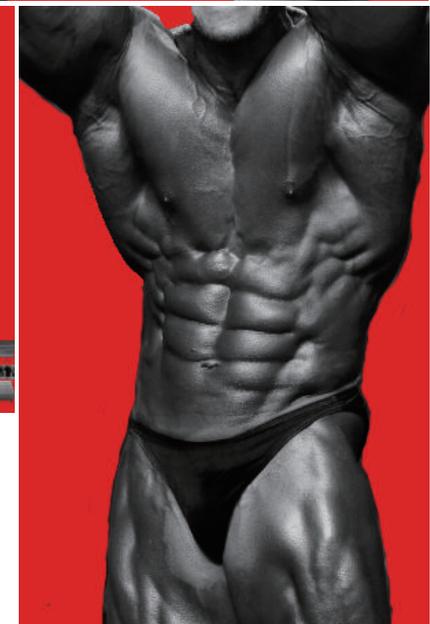
우리동네 프로젝트이다.

재개발로 인해 오랫동안 맑은 동네에 향기와 풍경이 사라지고 있었고 모습을 묵묵히 보고 사진과 영상, 드로잉, 글로 정리한 프로젝트이다.



〈우리동네 프로젝트 드로잉〉, 2017, 종이 프린트, 드로잉, 21x29cm (위)

〈우리동네 프로젝트 드로잉〉, 2017, 영상 및 사진 촬영 (아래)



육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빈 껍데기인 육체에 모든 힘을 쓰는 사람들,
옷을 입으면 가려지는 그 욕심들.
많은 매체에서 건강 = 몸이 좋은 모습의
기형화가 보여 그것을 기록하며 표현하였다.